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3월 1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우리 가족을 구원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정 경 숙 -

저의 가족은 전원성전에서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고 다양한 은혜 가운데 특히 최근에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사인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 그 결과 남편의 위에서 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는 위벽에 착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용종처럼 있어서 그 용종 모양은 제거하였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벽에 착상된 것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못한다면 소견서를 써 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아 3개월

후에나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시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구역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곧 대학병원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때마침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어 빈 시간이 생겼으며 일주일 후에 시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에게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받게 되도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합심기도를 위해 남편이 입원하여 시술 받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시술로 용종을 제거했던 부위를 아예 잘라내는 것이 좋겠다고,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교수님이 깨끗하게 시술이 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4일 후에 남편이 퇴원을 하고 이어서 일주일 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위벽에 착상된 것은 이제 괜찮지만 먼저 병원에서 악성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던 용종 자리에 암조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리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리암은 암의 0기로 판단하는데 암세포가 이동을 하지 않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특이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일 남편의 위벽에 착상이 없었더라면, 교수님이 그 자리도 잘라내자고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다음 건강검진을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암을 빨리 발견하여 조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개월 후에 위 주변의 장기들을 검사할 예정인데, 그때에도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향

한 남편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신앙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용돈과 세뱃돈 등 작은 금액이라도 그 중에서 반드시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나 어떤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받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둘은 모두 말쑥 없이 사춘기를 보내고 학교생활을 잘 마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일하는 회사가 파견근무가 잦은 곳인데 딸은 가는 곳마다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봐!” 자주 이런 말을 하여 저를 기쁘게 합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저금했다가 잠깐 귀국하였을 때 한꺼번에 현금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딸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최근에 파견근무를 간 곳에서 지금 받는 연봉의 2배와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제시하며 딸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충실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는 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이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도 앞으로 딸 못지않게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족에게 임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6단원 :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39과) 착하고 충성된 일꾼

- 본문 : 마태복음 25:14-30
- 요절 :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 25:21)
- 찬송 : 492장(새찬송가 435장), 370장(새찬송가 330장)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께 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의 재능에 따라 첫 번째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긴 후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외국으로 간 후 곧바로 그것을 밀친 삼아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첫 번째 종은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종은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종들처럼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세 종은 주인 앞에서 회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금까지 합하여 열 달란트를 내어놓았고,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금까지 합하여 네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종들을 보고 흡족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심히 책망하며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고전 6:20).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종이란 그 주인의 소유물이요 재산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아야 하며 주인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그 본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종을 보호해 주고 먹이고 입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세상의 주종관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격과 성품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자랐으며, 어떤 성격을 가진 자며, 어느 방면에 가장 적절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의 사명을 주십니다.

한편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맡겨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주인되시는 예수님께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집이나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듯이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도 제각기 개성과 가진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판단하여 큰 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중간 정도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연약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 준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첫 번째 종보다 적게 받았지만 주인의 처사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감당할 능력을 잘 아시고, 이에 따라 가장 합당한 사명을 부여해 주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달란트를 넘보게 됩니다. 이 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회의와 불신을 심어주어 자기의 달란트와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비교하여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대로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 두지 말고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주신 장사 밀친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라고 말하며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하며,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내가 굳은 주인이라면 너는 마땅히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 두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 돈에 대한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며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이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데 화를 낸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충성된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악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큰일을 맡기십니다. 충성된 성도는 자기가 맡은 임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긴 종이나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인에게서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칭찬받을 만한 기회를 상실한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맡은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실 때에 모두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역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호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